



부산 코멕스산업, UV 잉크젯 디지털 라벨인쇄기 Tau330 도입 연 1만여종 라벨 인쇄물 제작...연내 오픈하우스 계획

코멕스산업(대표 성기천)은 지난 8월 K-PRINT Week에서 선보인 더스트의 UV 잉크젯 디지털 라벨 프레스 Tau330 7C를 한국총판인 ㈜디디피스토리를 통해 도입했다.

자료제공 | ㈜디디피스토리

코멕스산업은 부산인쇄타운에서 20년 이상 라벨 사업에 종사해 온 기업으로 최근 라벨 및 패키징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다. 원래는 로터리 인쇄기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연간 1만3000종의 다양한 라벨 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스트의 Tau330을 선택했다.

UV 잉크젯 디지털 라벨 프레스 Tau 330

Tau 330은 싱글패스 자외선 잉크젯 기술을 이용하는 장비로, 720×1260dpi의 높은 해상도를 자랑하며 생산속도 또한 빨라 풀컬러 인쇄시 분당 최대 48m 시간당 최대 2880m를 출력할 수 있다. 장비의 인쇄 속도가 빨라 인건비와 기계 작동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원단의 교체와 적재부터 작업 시작의 모든 설정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특히 클릭당 비용이 소모되는 방식이 아닌, 실제로 인쇄하는 부위에 들어가는 잉크만큼의 비용만 발생한다.

또한 Tau330만의 특별한 가변 데이터 제작 프로그램으로 넘버링, 텍스트, 바코드, 매트릭스, QR코드 등 기본적인 가변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가변 데이터를 빠르게 제작, 수정 및 인쇄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영문뿐 아니라 한글도 지원한다.

사전코팅이나 특수코팅을 하지 않고 다양한 표준 재료를 쓸 수 있으며, 코팅·비코팅 종이, 백색·투명 필름, PP, PE, PVC, POPP, 알루미늄포일, 패키징 필름, 수축필름, 인물드 필름 등 다양한 소재에 인쇄할 수 있다.

코멕스산업이 도입한 Tau330 7C는 CMYK + 화이트, 오렌지, 바이올렛을 추가해 총 7색으로 인쇄가 가능하며, UV잉크의 내구성도 뛰어나 자외선, 스크래치, 화학물 등으로 인한 자극에 상당히 강하며 이로 인해 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텍스트 및 그라데이션 등 부드럽고 정밀한 색조 표현과 영상과 같은 사진이 가능하며, 팬톤 컬러 90% 이상을 재현할 수 있다.

성기천 대표는 “최근 라벨 및 패키징 분야로 영



역을 확장하면서 소량 다품종인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디지털 라벨인쇄기인 Tau330을 도입했다. Tau330으로 생산량은 3배 늘어났지만 운영 인원은 1명으로도 충분하고, 작업시간도 단축했다”라며 “연내에 오픈하우스를 열어 고객사와 협력업체에 Tau330의 높은 생산성과 성능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420번길 41 (삼락동, 부산인쇄타운 404호)

전화 | 051-301-6771 팩스 | 051-301-6773